

# 사라지는 것을 위한 輓歌

## 옛 서울이야기 등 추억과 향수 불러일으키는 책들

“잠실은 섬이었다.”

1920년생의 서울토박이 강대원 할아버지는 「서울에 살어리랏다」(무수막)에서 그렇게 증언한다. “한강에는 섬이 두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여의도이고 지금은 전혀 섬 같지 않게 변해버린 잠실이 바로 섬이었다”는 것. 지금은 어떻게 해서 섬 같지 않게 변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지만, 다다음 단락의 첫문장 또한 “잠실은 큰 섬이었다”라고 시작된다.

역시 서울토박이자 1925년생인 동화작가 어효선씨는 「내가 자란 서울」(대원사)에서 “인력거꾼의 딸이 거의 기생”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인력거꾼은 지금의 택시요금보다 비쌌던 샴을 받으면서도 손님인 기생에게 존대어를 하지 않았고, 기생이 오히려 인력거꾼에게 깃듯이 존대하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회고한다. 그런데 해방전 평양을 배경으로 한 김이석의 단편소설 「失砲銘」에 의하면, 인력거꾼과 기생과의 호칭이 아주머니—아씨 사이라고 묘사된다. 서울과 평양의 지역적 차이이거나, 두 작품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반백년간의 서울풍속 증언록들

이 두 권의 책이 반백년 전, 1930년대의 서울살림을 체험을 토대로 기록한 ‘증언집’이라면, 前MBC 앵커맨 이득렬씨의 「잃어버린 서울 그리운 내 고향」(고려원)은 해방과 6·25를 겪으며 보냈던 어린 시절의 서울 풍속도이다. ‘50대 아빠’ 이충우씨(평화신문 편집국장)와 ‘40대 아빠’ 남석희씨(평화방송 총무부장)는 「아빠의 어릴적 이야기」(장락)를 통해 각각 4, 50년대의 전주와 5, 60년대의 청주 추억을 들려준다. 53년생의 김종태씨는 쪽, 양은그릇, 족두리, 뒤주 등 사라져가는 100여개 물건을 소재로 삼아 시집 「그때를 아십니까」(새벽)를 펴냈다.

이미 사라졌거나 바야흐로 황혼의 시간을 맞이한 옛풍물과 인심을 오직 기억에 의지해 복원한 이 책들을 병렬시키면, 매우 성기지만 그러나 구체적이고 진솔한 반백년간의 풍속사를 재구할 수 있다. 우선 보릿고개시절 회고담의 광맥은 먹는 일에서 찾아진다. 이들 책 내용의 8할이 군것질이나 주전부리 추억에 할애된다.

30년대의 군것질거리리는 1전이였다. 인절미나 절편, 개피떡, 눈깔사탕, 국화빵이 1전이였다. 그나마 돈이 없는 아이들은 군침을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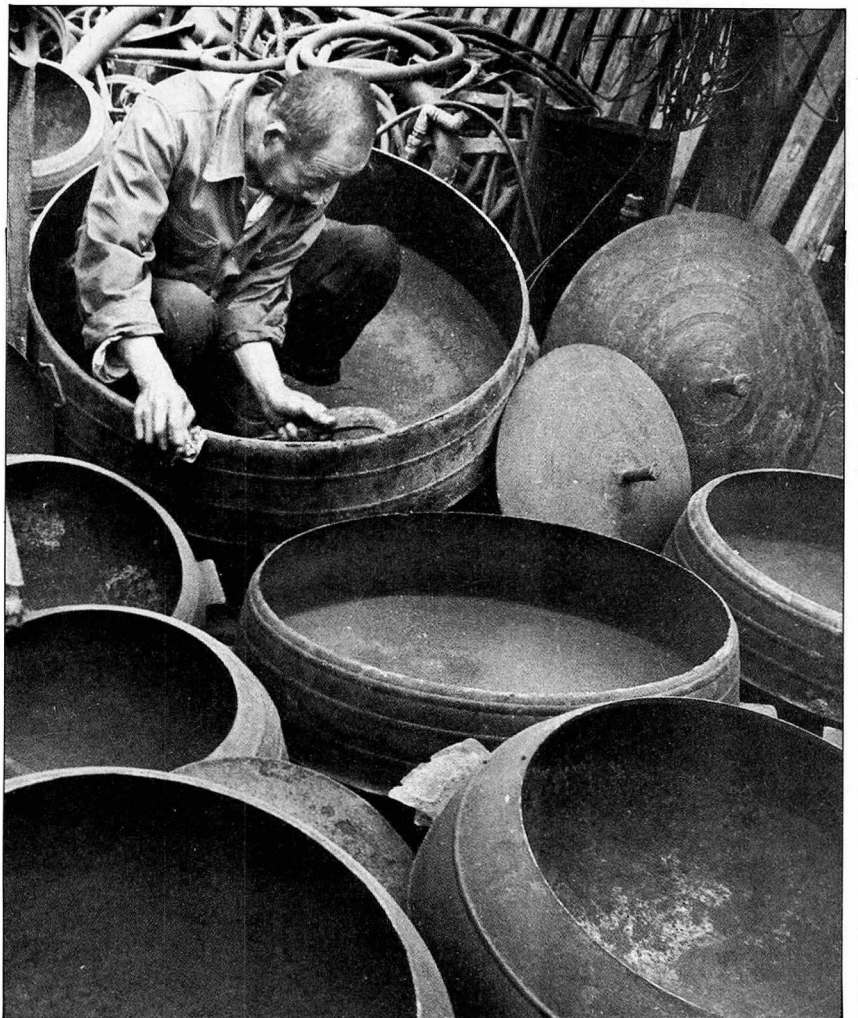
키면서 구경만 실컷 했다. 용돈이 없어 군것질을 못하는 아이들을 가장 흥분시킨 이는 그래서 옛장수였다. 한창 쓸 수 있는 양은그릇을 가져가면 옛장수는 가위로 툭툭 쳐서 찌그러뜨린 뒤에 엿을 주었다.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무쇠를 녹여 쓸 수가 없”었는지 옛장수는 무쇠술을 가장 싫어했다. 대패로 쓱쓱 깎아주는 울릉도 호박엿을 충청도 출신 ‘40대 아빠’가 처음 먹어본 때는 64, 5년도이다. 그 이후에도 온동네 꼬마들이 가슴 설레며 “쨈그렁 쨈그렁” 가위소리를 기다리는 풍경은 변함없지만 옛 바껴먹는 새로운 품목이 등장한다. “파쇠나 빈 병 사러”의 빈 병이 그것이다.

주전부리를 위한 어린아이들의 ‘보급투쟁’은 훗날 추억과 낭만으로 남겠지만, 그들의 부모는 황량한 별판의 짐승처럼 생존을 위해 생애를 바쳐야 했다. 방아타령의 박걸처럼 육체의 배고픔을恨스런 노래로 잠시 잊고자 했던 모양이다.

“정월에는 만두범벅, 2월달에는 송편범벅, 3월달에는 냉이범벅, 4월달에는 썩범벅, 5월달에는 느티범벅, 6월달에는 보리범벅, 7월달에는 밀범벅, 8월달에는 수수범벅, 9월달에는 호박범벅, 10월달에는 무시루범벅, 11월달에는 팔죽범벅, 설날에는 긴떡범벅, 이만하면 열두달범벅이 만족하구나.” 요즘이라면 건강식이나 별미로 여기는 음식이 그땐 “죽을 맛”이었고, ‘죽을 맛’도 제때 차려먹지 못해 범벅타령으로 대신했던 시절이었다.

그같은 체념의 미학이 내면화된 저자들의 과거는 그리움의 정조로 가득차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 속의 비인간화로 요약되는 요즘 사회와는 대척적으로, 지년간 세월의 세상살이는 “배는 고깃지만 훈훈했다.”

이들 옛이야기 증언집은 소시민들의 풍속사 원재료 및 기초문헌으로서 한몫할 뿐더러 ‘하찮은 것’이 궤변적인 가치의 절정이 되는 “無數한 반동”의 소재도 제공한다. 이를테면, 최첨단을 노래했던 김수영시인이 1964년에 발표한 「巨大한 뿌리」에서 “요강, 망건, 장죽, 種苗商, 장진, 구리개 약방, 신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無職쟁이” 등 그 당시에 이미 “향수에 어린 딸”들을 열거했을 때, 사라질 운명에 처하고 그 운명을 기거이 수락한 사물들이 신제품 ‘금성 라디오’보다 더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두 페이지에 한번쯤은 촉발시키는 것이다.



숙전. 갓 만들어진 무쇠술의 칼날같은 가장자리를 다듬는 주인. 「내가 자란 서울」에 수록된 한영수씨의 작품.

라디오 아나운서의 능변을 “양반답지 못하게 까불거린다”고 일침을 놓던 할아버지, 금니가 권력과 부의 상징이던 시대에 일부러 생이빨 빼고 금니 박은 동네 아저씨, 서너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 시렁 위의 꽃감을 꺼내먹는 스틸·위기·감동, 뚝섬에서 나룻배 타고 압구정동으로 소풍가는 풍경 등에 대한 삽화는 함께 어울려 흘러간 시대의 모자이크 그림이 되기도 하지만, 각편 나름대로 평전이나 전기류의 생애소 혹은 한 장의 흑백사진처럼 사유와 몽상의 단초를 마련해준다.

또한 이 책들은 각권마다 각급의 한국출판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담지하고 있다. 「서울에 살어리랏다」는 PC통신망에 연재했던 글 모음으로 ‘출판 대중주의’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내가 자란 서울」은 사진작가 한영수씨의 인정미 넘치는 작품이 백여점 수록돼 ‘비주얼 북’의 면모를 자랑한다. 「그때를 아십니까」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다. 시집 서문의 제목이 “나는 절규한다”이다.

### 올해 定都6백년 맞아 ‘서울책’ 잇따라

한편 올해로 定都 6백년을 맞이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서울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의 어느 곳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풍부한 사료를 제시하며 설명한 「이규태의 6백년 서울」(조선일보사), 서울에 남아있는 고적과 유적에 얽힌 일

화 및 뒷골목의 뒷얘기를 집성한 이경재씨의 「서울 정도 6백년」(전4권, 서울신문사), 서울의 산증인들의 인터뷰내용을 풍부히 수록한 전택부씨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서울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소개한 책들이다. 「아름다운 서울」(서울 포럼)과 「사진으로 본 서울의 어제와 오늘」(서지원)은 구한말 이래 서울의 모습을 담은 화보집. 김우연 편저 「정도 서울 6백년」(학술자원공사)과 서울시 편 「서울 600년史」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집이다. 덕성여대 이원복교수는 아동용 ‘서울책’을 내놓았다. 서울의 유명건축물 25가지를 입체적 모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한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의 명물 25」(시공사)와 「월리를 찾아라」를 원용한 「달리를 찾아라 서울 서울 서울」(시공사)이 그것.

특히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서울연구」(한울아카데미)는 “문예작가들이 다듬어 놓은 서울론, 저널리즘이 즐겨 쓰는 서울론, 일반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론,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서울론, 도시행정가들 사이에 보편화된 서울론” 등 기존의 서울론을 “공간분리적 사고와 권력화된 담론”이라 비판하며 “공간정치경제학”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을 해부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연구」의 입장에 의하면 서울경제신문 시청출입기자팀이 쓴 「서울 서울 서울」(한국일보사)은 저널리즘과 도시행정가들 사이에 보편화된 서울론일 것이다.

—김중식 기자